백신을 접종한 닭에서
왜 마렉병이 발생한다고 할까?

대담: 정 수 화

박근식

<안양가축 위생연구소 계역과장>

때: 1974년 6월 11일 (화)
장소: 가축 위생연구소회의실

이런 호에는 양계절병 시리즈로 안양가축
위생연구소 박근식과장과의 마렉병(Marek disease)의 계발 문제점에 대한 대담으로 읽어
보았다. 마렉병은 탑의 임파종증(Lymphomatosis)종에 헤르페스 바이러스(Herpes Virus)에,
의해 일어나는 병으로 양계를 하고 있는 지역
은 어느곳이든 발생할 수려가 있는 것이다.
근래에는 M.D 백신이 개발보고가 이용되어
가능한 피해는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일본, 미국등지에서 마렉병이 발생,
양계가 당황하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
은 기자와의 대담명식으로 읽어 제재해 본다.

양계질병: 양계질병증 마렉병은 어느 질병
보다도 중요하고 보였다. 양계를 하고
있는 지역은 어느곳이든 발생할 수려가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발생율을 나
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탑의, 몸
좋, 사양형태, 건강상태, 영양상태, 지역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일단 발생하면
그 피해가 5~50%에 달하여 그 피해는 막심
하다고 보겠습니다. 다행히 MD 백신이 개발
보고된 이상의 방법으로 마렉으로 인한 피
해는 많이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
나 최근 마력 예방접종을 받은 닭에서 마렉
병이 발생했다는 맛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마렉백신의 질(質)과 보관 사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마렉병이 20~40% 나 나타날 수
있으나 하는 것이 최근의 문제점으로 나타나
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박과장님
개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근식: 백신의 질에 이상이 없는데 마력병
이 발생했다는 점이itness가 없습니다. 고려
대학교 축산과 이제근교수도 최근 이런 문제
점을 제기해 왔으나다만 정확한 근거가 없어
이야기 하기가 곤란하군요. 마력박신이 접종한 담에서 마력병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백신의 질, 시술상 생접종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어째서 20~40%의 마력병이 발생했다고 할까? 양계가들에게 한층 더 고민을 면쳐 주게될 마력병의 이상에 관해 안양가축 위생연구소 박근식과장과의 대담을 통해 알아본다.

** 깨끗한 환경은 모든 질병의 예방책이다. **
마력박신을 접종하여도 10~14일은 완전 격리된 깨끗한 환경에서 육추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력박신은 너무 과신한 나머지 백신 접종을 했다고 방심하면 양계가의 막심한 피해를 자초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박근식

이제야 하기가 곤란하군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일반 양계가들에게 청탁음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으로 학술적인 편으로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 만약 A양계가에 마력병의 피해가 30%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회사의 백신이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 역가를 가진 것을 공급했으며 부화장이 백신의 양을 얼마나 접종했는지 의심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결정체를 예를 들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 양계협회에서 실시하는 결정체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다른 양계장에서 마력병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월간양계: 그럼에 외국에서 실제 이러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지요?
박근식: 문제상으로 나타난 외국의 예포트를 통해 보면 면역학적으로 마력박신은 N.D 나 계두, 독러레타와 같이 면역을 부여시키는 메커니즘(Mechanism)이 확실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ND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를 약독화 혹은 강독을 줄여 사독을 만들어 면역효과가 발현되었을 때 N.D 바이러스를 넣어 사용하는데 마력바이러스는 그림지 못합니다. 마력바이러스는 HVT(herpes virus turkey: 청편조에서 분리한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 것은 아직까지 어린 것인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HVT가 마력바이러스의 증식에 역제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지만 아직까지 마력백신의 효과 증식에 확실한 정립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체로 가정을 바탕에 이론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문헌의과정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력백신을 접종하면 일생동안 면역을 갖게하실어, 따라서 담의 채널에서 마력백신이 증식하고
특집 2

성 결과가 높은 왕래로 막라 바이러스의 항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즉시 막라백신을 접종하도록 권장되어 있고 또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막라백신을 주사하면 모체에서 받아온 항체에서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생득백신을 접

성도 이상항체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바이러스로서는 면역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어떤

적 영향계가 만들게 될 수 있는가인지 바이러스의 외모에 따라 미세한 변화가 있음을 알자면

면 백질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막라백신을 접종한 모체에서 영향계를 가정하여


총계도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

성 결과가 높은 왕래로 막라백신을 접종하여 전염상을 예방하는 바이러스로 항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즉시 막라백신을 접종하도록 권장되어 있고 또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막라백신을 주사하면 모체에서 받아온 항체에서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생득백신을 접

성도 이상항체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바이러스로서는 면역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어떤

적 영향계가 만들게 될 수 있는가인지 바이러스의 외모에 따라 미세한 변화가 있음을 알자면

면 백질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막라백신을 접종한 모체에서 영향계를 가정하여


전국 이색의 총계도에서도 백신을 놓기 때문에 전여서 발생되는 백혈도 항체를 가지고 있

게 됩니다. 따라서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과거 총계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을 때의 비교에서

다소 백혈의 발생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처럼 적절한 영향으로 되어 꼭 필요가 있겠

습니다. 그러나 과반 농장에서 총계에 어느정도 백신적 백신을 놓고 또 생각된 바이러스에서

여름도의 영역을 가지고 있고 하며 영향이 높지 않느냐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나 단지

이론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 이색의 총계도에서도 백신을 놓기 때문에 전여서 발생되는 백혈도 항체를 가지고 있

게 됩니다. 따라서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과거 총계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을 때의 비교에서

다소 백혈의 발생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처럼 적절한 영향으로 되어 꼭 필요가 있겠

습니다. 그러나 과반 농장에서 총계에 어느정도 백신적 백신을 놓고 또 생각된 바이러스에서

여름도의 영역을 가지고 있고 하며 영향이 높지 않느냐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나 단지

이론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 이색의 총계도에서도 백신을 놓기 때문에 전여서 발생되는 백혈도 항체를 가지고 있

게 됩니다. 따라서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과거 총계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을 때의 비교에서

다소 백혈의 발생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처럼 적절한 영향으로 되어 꼭 필요가 있겠

습니다. 그러나 과반 농장에서 총계에 어느정도 백신적 백신을 놓고 또 생각된 바이러스에서

여름도의 영역을 가지고 있고 하며 영향이 높지 않느냐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나 단지

이론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백신접종은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곤란정신이 있어야 하며 마력백신을 놓았기 때문에 환경을 다양하게 향상시켜야 하는 생각은 훗치 않다고 봅니다. 백신은 백신 면역 접종하고 질병의 치료를 최소한으로 맞는 것이 방역의 근본입니다. 예를들어 유격을 백신을 놓았는데, 예를 놓아서 발병이 발생한다면 때가 오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곳에서 왔가 전염되시지 않는데, 이런 것은 담이 사유상태이 아니라 다를게 나타납니다. 백신을 놓아도 질병이 치료받는다는 것을 보아도 역시 환경을 깨끗이 해야만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 한 요소인가 하Ymd겠다.

월간양계: 백신의 역가는 보건상태, 운반상태 등 여러 가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보건 관리에 필수를 좀 하지 못하면 백신의 효과는 없어질 일이나 거기로 또 효과가 없는 백신을 접종했을 때 마력병이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백신 접종 상태는 본인이 직접확인

박근식: 기왕 백신을 취급하고 있는 메이커 에 이 기회에 부탁드리고 싶다면 유통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막아야 되겠 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백신공창에 혼한 역가를 함유한 백신을 생산하되 하더라도 유통과정에서 잘못 취급했을때 즉, 합법에 노출되었거나, 곤에 보관되었다면, 수포가 높다든지 동, 백신을 보관하는게 있어 적절한 상태가 되지 못하면 역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역가가 떨어지는 것이 놀라 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백신은 항상 어둡고 잘 넓장고에서, 특히 세 포결합백신, 소위 병합백신 백신은 최소한 80°C에 보관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것이 한 번 놓려도 다시 억제가 되었다고 효력이 저하 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백신의 과학적, 사용상의 문제, 백신의 유효기간을 잘 알고 사용하도록 말을 취급하는 상대, 제조회사등도 책임있게 양측가에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마력병은 담이 120~150일정 가서 사로를 많이 죽이지 않게 발생되다면 이때 주의해 본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백신을 접종한에도 남에게 발기시 말고 백신을 놓는 상태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역시에 되면 백신의 접종을 계확 인해야 할 것입니다.

월간양계: 실제적으로 양계가들은 사육도중 백신병이 발생하면 화학거리는 시술상의 잘못 또는 위생상의 불일치 등으로 큰 잘못을 화학거리는 잘못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사용자가 가의사상에 이상이 있으면 질병이 걸릴 우려가 있어서도 책임을 전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지요.

백신 접종은 경험이 많은 수의사가
채이항 측의 고유성은 이것이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2,000단위 혹은 1,500단위를 무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00 단위 이상을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해야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판적으로 보시지 않겠지만 양 계에 있어 커다란 오점과 장점이 남기게 됩니다. 이중에는 경제적으로 박탈한 피해를 주지하기 때문입니다. 또 전문분야도 그렇습니다. 제가 듣는 바로는 전문하는 사람이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라. 예를 들면 수의사가 전문 한 grado 중에서도 마법력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많은 사람이 시술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부분은 부작용에서 근본하는 총점에에 의해 묻는다면 이것은 희망이 가려 공감력을 몇드러닝 것이라 합니다. 해나하면 수의사의 해석에 의해 편향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자격을 인정했으므로 수의사가 적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총점이 비협심적으로 전문화 한다 해도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로? 만약 수의사가 시술상에 잘못이라 심했다면 수의사의 자유를 정지시키기나 법적으로 박탈 시키기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날 보다 아니라 앞으로 축산물의 기반을 옮겨놓기 위한 기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수의사가 농 개별마다 단독 인상적이며 다 들어간다 하겠지만 결국 이러한 것이 우리 사회에서의 요소가 됩니다. 애견복용 자체만은 무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이나 노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책임이 가지고 상품을 다루려 한다면 솔직히 취급할수 있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례 예외사회에서 수의사를 고용해서 백신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않으면 책임이 모호하게 될 것입니다. 적절한 경우 백신을 주시켜서 백신이 발생한다고 할 때 이것을 누가 진단했는지 문제가 됩니다. 10~30%가 나보다고 해야 양계장주인은 진단하고 하면 공감이 없을 것입니다.

월간차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양계가들은 질병이 발생하면 보건소, 가축위생연구소, 정부기관 등에 신고 또는 영향강점을 의뢰해야 한다.
한 가지는 마약바이러스 자체의 변화, 그다음은 마약바이러스가 몇에 미치는 변화로 볼 수 있는데 마약병은 만성중 상징적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백신이 주의를 요구합니다. 그러한 시점은 많이 하고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 확신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월간양계: 마약바이러스 접종시 평형적 변화에 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점을 하고 계신지요? 또 외국의 예는 어떻게니까?

박근식: 여기서도 야외시(Room)로 동일한 위치 포도, 건강, 건강한 시기에서 시험을 하고 있으나 그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진단시점, 보양이 확실한 정도로 접종하면 야외에서 무기, 복도에서도, 복도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별로 나타났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월간양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백신을 접종했다고 하여서 과소한 백신, 보다 감염될 염려가 커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탐의 영양상태, 동물의 영양 상태에 의해 감염될 우려는 없는지요?

충분한 영양 상태로 백신접종

박근식: 물론 백신 접종을 너무 과소하게Mid시도 합니다. 백신은 언제든 커피를 마셔야 할 것 입니다. 예방을 좋다고 한다면 병원은 접종의 과도를 합니다. 사료, 접종사, 위의에 의해 진행될 수도 있었습니다. 백신을 접종했라도 소독은 소독여도 하고 충동제비 등 외부에서 virus를 옮길 수 있는 요인이 많아질 것입니다. 백신은 백신이 완료하다 해도 탐의 체계의 영양상태가 좋지 못하면 발병할 염려가 있습니다. 사료, 접종사, 탐의체, 또는 다른 질병으로 탐의 체계가 해악하여 약제가 약화되면 질병이 치료할 염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A가 부족한 탐에 있어 모든 백신의 효력을 높이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회에 양계가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탐이 잘 발리지 않으니가 외상여지에 대해 지지하는 데에 협력은 유발할 염려가 있습니다. 사료에 들어가기는 것은 효과적으로 거쳐주는 염려라고 그량 겨져야 되는 것이 전장치가 없을 것입니다. 야외는 이런 방어를 가지고 자기를 안전히 바꾸는데 관리에 대면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접종을 유발할 염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지난해 뉴스사들이 발생하였을 때 사료값이 상승하고, 사료가 증가되어 양계는 제재이 없어지지 않게 백신접종도 계획하고 관리도 소홀한데도 사료값이 나빠 질병이 다가온다 보다 더욱 관리하여야 합니다.

월간양계: 이계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약접종을 했다고 해서 너무 과소하게 접종하면 감염될 염려가 커진가 있다고 보아야겠습니까. 그러나 최근에 백신에 대한 점검. 보다 식품에 문제가 없었는데 해야 백신이 나타날다고 하느니는 당연히 휴식의 갑작, 유통상의 잘못, 시스템의 잘못만으로 담당해지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가지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가 더욱 진행되어 그 원인을 규명해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희 월간양계에서도 이러한 백신의 발생원인을 의의 주시하여 계속 주의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걸릉을 내려고겠습니다.

박근식: 사전상 백신에 대한 현황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고 충분한 의결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양계가 원하는 단체가 그 원인을 조사 규명하는데 노력해야 하고, 관리자자들은 자기 백신의 유통 과정, 보관은 진조히 하여 역자가 좋은 것을 공급해야 하며, 아화도에서 접종시 약품을 공급하는 희귀에 의한 부화장 측에서 하는 확신 측에서 하는 책임있는 보수를 위해 양계가 원하는 일에 관리가 되어 향후 캐드를 비치 확신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양계는 발아지 구입시 백신접종을 확인하고, 탐의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긴 검사생활의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